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APO '지역사회중심의 에코투어리즘 발전과 관리에 대한 연구시찰단' 참가
2. 출장목적: 에코투어리즘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리에 따른 다양한 접근과 요점들에 대해 참가자들의 지식 향상에 기여, 우수사례를 APO 회원국들에게 보급
3. 출장지역: 카트만두, 네팔
4. 출장기간: 2009. 5. 24 ~ 5. 31(8일간)
- 세미나 개최일자: 2009. 5. 25 ~ 5. 29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	초청연구원	최경은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
5. 24(일)	13:05-15:40 인천 국제공항 출발(KE 613)→홍콩 경유 18:55-21:25 홍콩(KA102)→네팔 카트만두 공항 도착
5. 25(월)	08:30-09:00 등록 09:00-10:00 개회식 10:00-10:30 다과 10:30-11:00 프로그램 개요 11:00-12:15 주제 발표(1):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의 에코투어리즘 개발: 동향, 기회와 도전 12:30-13:30 점심 13:30-13:45 네팔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비디오 상영 13:45-15:00 주제 발표(2): 지역사회에 기반한 에코투어리즘 관리에 대한 접근: 네팔 경험에서의 몇 가지 교훈 15:00-15:15 다과 15:15-16:30 주제 발표(3): 농촌 빈곤의 경감과 환경 보전에서의 에코투어리즘의 역할 16:30-17:00 네팔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비디오 상영 19:00- APO 주체 환영 만찬
5. 26(화)	09:00-10:15 주제 발표(4): 에코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에 대한 우수 사례 10:15-10:30 다과 10:30-12:30 참가국별 사례 발표(5개국)

	12:30-13:30 점심 13:30-15:00 참가국별 사례 발표(4개국) 15:00-15:15 다과 15:15-16:45 참가국별 사례 발표(5개국) 16:45-17:15 패널 토의: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 에코투어리즘 정책, 계획, 관리에 대한 비판적 이슈 17:15-17:30 Field Studies에 대한 브리핑
5. 27(수)	Field Studies - ICIMODE Field Station in Godawari(국제종합산지개발센터) - National botanical garden(국립식물원)
5. 28(목)	Field Studies - Borderlands Resort(래프팅, 카약, 트레킹 등 에코투어체험장)
5. 29(금)	08:30-10:30 필드 답사에서 얻은 교훈 및 우수 사례에 대한 그룹 워크숍 10:30-10:45 다과 10:45-12:00 그룹 워크숍 결과 발표 및 토의 12:00-12:30 요약 및 평가 12:30-13:00 폐회식 13:00-14:00 점심 14:00- 카트만두
5.30 ~5.31	30일 11:35-18:20 카트만두 공항(RA409) 출발 → 홍콩 경유 31일 00:25-04:55 홍콩(KE608) → 인천공항 도착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○ 참가국 및 참가인원: 13개국 17명

- 참가국 명단: 캄보디아, 타이완, 인도네시아, 이란, 인도, 라오스, 말레이시아 2명, 대한민국 2명, 필리핀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타이 2명, 베트남 2명
- Resource Person: Mr. Guy Chester, Dr. Mina T. Gabor, Mr. Rajendra Narsingh Suwal
- APO 및 NPEDC 관계자

II. 주요 출장 결과

1. 주요 세미나 내용 요약

☐ Resource Person의 발표내용

-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코투어리즘 사례(Mr. Guy Chester)

- 에코투어리즘의 큰 개념은 지속가능한 관광 속에 포함, 자연 관광(Nature Tourism)과 탐험 관광(Adventure Tourism)을 접하는 개념으로 이익(benefit)에 기반하는 것이 차이점임.
 - 피지(Fiji)와 말레이시아(Malaysia) 등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, 에코투어리즘은 지역 커뮤니티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함.
 - 이를 위해서 교통, 산업, 사람, 생산품을 연계하고, 독특한 문화와 자연, 경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, 무엇보다 품질은 필수적임을 강조
- 에코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에 대한 우수 사례(Mr. Guy Chester)
-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이해 및 교류 수단으로 가이드, 게임, 대화 등 일대일 접촉을 통한 교류 및 그 외 브로슈어, 비디오 슬라이드 쇼 등을 활용
 -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현장 실사, 자원, 에너지(온실), 물, 자원, 커뮤니티(문화), 미시경제적 요인, 지속적인 개선 등을 들 수 있음.
 - 특히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스텝들을 훈련시켜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알고, 자연적 위해성을 제거하도록 하며, 관광객들에게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
 - 전세계적으로 에코투어리즘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우수사례 가이드와 증서로 Mohonk Agreement, GSTC(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), STSC(Sustainable Tourism Stewardship Council)이 있음.
- 농촌 빈곤의 경감과 환경 보전에서의 에코투어리즘의 역할(Dr. Mina)
- 에코투어리즘의 원칙은 (1) 자연, 문화, 환경을 보전, (2)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, (3) 지역 내 관광 계획을 실시, (4)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, (5) 관광산업 계획과 지속가능한 성장 계획 수요를 강조, (6) 지역 보유 시설 이용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 지불 등
 - 에코투어리즘 방문객들은 주로 남성으로 35~54세 젊은 층, 대학 졸업자,

고소득자들이 비중이 높았음. 여행 결정 요인으로는 경관이 5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, 그 다음으로 물, 자연, 공기, 관습, 건축물 순으로 나타났다.

- 필리핀 돈솔(Donsol)의 고래상어(Whale shark) 탐험
 - 돈솔(Donsol)은 마닐라 남쪽 소르소곤주(Sorsogon) 주에 위치, 한때 고요한 도시였으나 현재 11,000명 관광객이 방문.
 - 관광객들은 주로 현지에서 부탄딩(Butanding)이라고 불리는 고래상어 때문에 방문하고 있으며,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할 기회도 주어짐.

□ Country paper 발표 내용

○ 슬로시티(한국 사례)

- 슬로푸드는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과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자 자연적 흐름에 따라 생산되는 음식으로 요리되는 개념임. 이는 산업화, 표준화, 기계화를 배제한 자연식으로 지역과 전통 문화에 기반한 음식임.
- 슬로시티는 슬로시티운동에 기반하여 등장.
- 슬로시티 등장 배경은 도시화, 산업화를 배제하고 웰빙과 '느림'에 대한 열망으로 등장, 자연 매력물과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을 창출하도록 개발하고자 함.
- 전라남도는 담양군 창평면, 장흥군 유치면, 신안군 증도면, 완도군 청산면 등 4곳이 '느리게 살기 마을'로 지정되면서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·문화·환경·역사 등을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을 알리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 중임.

□ 현장견학

○ ICIMODE Field Station in Godawari(국제종합산지개발센터)

- ICIMODE는 지역에 대한 지식의 개발 및 학습 센터로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
- 히말라야 일대 아프가니스탄, 방글라데시, 부탄, 중국, 인도, 미얀마, 네팔, 파키스탄 8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
- 세계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의 안정성과 산악의 생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의를 통해 통합적인 물 관리, 위험 관리 실시하고 통합적인 지식을 관리하고 있음.
-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○ Borderlands Resort(에코투어체험장)

-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티베트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, Bhote Kosi 강을 따라 래프팅 이뤄짐
- 주요 프로그램: 래프팅, 트래킹, 카약킹, 리조트 캠핑
- 주요 방문객: 주 고객은 유럽,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이 방문
- 전문 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만이 트래킹, 래프팅 등에 관한 요령에 대해 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

2. 세미나 평가 및 소감

○ 세미나 참가자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

- 많은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이 에코투어리즘의 수요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, 농촌관광 등의 지역개발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의 경험 공유 및 참가국가들의 정책 동향 파악 등 지속적인 유대를 통한 협력 방향을 모색

○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광을 위해서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, 탐방 코스도 좋았으나 에코투어리즘을 하는 농촌마을을 방문하거나 지역민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.